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풍영정천·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입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제1779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6월 28일 (음력 5월 14일) 목요일

"아! 제발 살아있길 바랐건만…"

캄보디아에서 추락한 러시아제 AN-24기의 동체가 발견된 보코르산(山)에서 27일 캄보디아 구조팀이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탑승객 22명 전원 사망

캄보디아 정부 공식 확인…조종사 과실 가능성 높아

캄보디아에서 지난 25일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13명을 비롯한 탑승객 22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6면〉

캄보디아 키에우 카나리드 공보장관은 27일 수색팀이 보코르산 북쪽에서 추락한 여객기의 동체를 확보했으며 탑승객 전원이 "모두 숨졌다.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희용 대변인도 "캄보디아 정부가 항공기에 탑승한 22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공식 통보해왔다"면서 "정부는 사후 수습에 있어 가족의사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가 발견된 위치는 프놈펜에서 167㎞ 떨어진 북위 10도50분982초, 동경 103도55분417초 지점의 경사가 심한 산악밀림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국인 13명을 포함해 탑승객 22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객기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된 승객의 신병은 헬기를 통해 프놈펜의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시신이 이송되는 병원은 깔멧병원이며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알루미늄관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측은 대사관 또는 병원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갑렬 외교통상부 재외동포대사는 시아누크빌 공항 관제탑이 25일 여객기가 실종되기 직전 "고도가 너무 낮다"고 사고기에 경고했으며 사고기 조종사는 "이곳 지형은 내가 잘 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기 추락사고는 조종사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프놈펜·서울=연합뉴스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홍보실 1588-5051 ▶T.(061) 360-5000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씨 별세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이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9세. 〈관련기사 7면〉

유족으로는 부인 신경희(48)씨.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발인 30일 오전 9시30분. 빈소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장지 국립 5·18 민주묘지.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3년7개월만에…남구는 제외
부산·대구 등도 대부분 포함

남구를 제외한 광주지역 4개 자치구를 비롯, 부산·대구 등 3곳의 지방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관련기사 11면〉

건설교통부는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용섭 장관 주재로 정부측 13명과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등 3곳의 지방 대도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광주 남구를 비롯, 수도권과 대전, 울산 등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덜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된다.

정부는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2일부터 해당 도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는 지난 2003년 11월 지정 이후 3년7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주택거래 급감, 미분양 물량 폭증 등 고사 직전으로 내몰린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건설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유지 등 획일적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시·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안)	비고
수도권	서울	전 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유지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전 지역	유지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영도구 제외 나머지 13개 구·군 해제	일부조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제외 나머지 6개 구·군 해제	일부조정
광주광역시		남구 제외 나머지 4개 구 해제	일부조정
울산광역시		전 지역	유지

정부가 일부 지방 대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최근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신일의 부도 등 지방건설업계의 붕괴가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수도권의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지방의 주택시장 만을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었다는 비난이 확산된 것도 해제 결정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건교부의 '전국 투기과열지구 현지실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수도권의 집값은 1년 전보다 19.2%나 뛰었다. 반면 광주는 1년간 집값이 1.4% 오르는데 그쳐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광주는 4월 말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정부 부동산정책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정부가 획일적 규제를 고수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끝내 파업

노조 58% 찬성…17년 연속 '오명'

기아자동차 노조가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8, 29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17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새로 쓰게 됐고, 광주공장에서만 월평균 2만여대에 달하는 자동차 수출 지연과 협력업체 생산라인 가동정지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27일 기아차노조는 광주공장을 비롯해 화성·소하리 등 3개 공장 2만6천484명이 금속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7.8%인 1만6천192명이 파업찬성을 가결, 28일 4시간, 29일 6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07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향후 파업일정은 기아차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 12만8천805원(기본급 대비 8.9%) 이상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광주공장 생산차질대수 1천300대, 손실액 207억원을 포함해 기아차 전체 5천400대 7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330여개의 협력업체가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하고 카니발·쏘렌토·스포티지·프라이드 등 주문받은 7만대의 물량에 제때에 선적되지 못해 직간접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26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파업철회 촉구집회에 참여했던 하남산단 A업체 대표는 "협력업체나 지역경제를 무시하는 기아차 노조의 분별없는 파업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태기자 jtlee@

알 림

제5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6월 29일(금) 오후 2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제52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상 작품 지상전·심사평 ▶14·15면

• 주 최 : 광주일보사 • 협 찬 : 삼성생명